

“해외 독도 교육,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진행되는 일은 막아야”

지난 9월, 재미동포 최좌성 씨가 '독도를 한국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미국 사립학교와 해당 교육청, 그리고 뉴저지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단의 김용환 연구위원이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봉준 변호사를 만나 그의 입장과 소송 진행 상황을 청해 들었다. _ 편집자 주

» 김용환 지인을 통해 미국에서 독도관련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사용 저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 중인 재미교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국과 일본에 언론보도도 되었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 김봉준 변호사가 처음부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독도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 김봉준 7년 전쯤부터 관심이 생겨 독도에 관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리앙쿠르'라는 독도 지명에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에 요청하여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았다.

» 김용환 해외 교포 중 독도에 대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을 만나니 반갑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었으며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김봉준 1년 전쯤 뉴저지주에 있는 일본계 학교에 찾아가 교과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교과서를 일본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일어로 쓰여진 교과서와 브로셔를 번역해 보았더니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미국에서 자라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는 그동안 독도 논란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교과서 내용은 독도를 한국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 더 알아봤더니 그 학교는 일본학교가 아니라 일본계 미국학교였다. 미국 아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담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다.

» 김용환 미국에 있는 일본계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교과서는 일본의 극우파 모임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에서 만든 후소샤 판 공민교과서다. 한국침략을 미화하는 등 문제가 많은 책인데, 구체적으로 피고는 누구이며 어떤 쟁점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김봉준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담긴 교과서로 수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가장 적합한 상대를 찾다가 일본계 미국학교와 교육부, 지역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정했다.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독도가 누구 땅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서가 상당히 정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니 그걸 시정해달라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뉴저지주 교육부에서 이 학교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 그냥 일본 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실린 교과서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교과서를 아예 바꾸라는 내용을 담아 정원을 했다.

» 김용환 예전에도 미국 초중등 교재로 '요코 이야기'(원제: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라는 책이 선정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해방시기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증오와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미국 내 교포 사회가 크게 반발해 결국 지역학교 교재 및 권장도서 목록에서 퇴출시켰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도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 교육 문제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 김봉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걸 정말 당연한 이야기다. 미국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본토도 아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에서는 안 된다.